

빙상 용융에 따른 해수면 변동

이원상^{1)*}, 유현재¹⁾, 이춘기¹⁾, 윤숙영¹⁾, 이승현¹⁾, 엄주영¹⁾, 김진석¹⁾, 이지연¹⁾

^{1)*} 극지연구소,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, wonsang@kopri.re.kr

Ice Sheet and Sea Level Changes

Won Sang Lee^{1)*}, Hyun Jae Yoo, Choon-Ki Lee, Sukyoung Yun, Seunghyun Lee,
Jooyoung Eom, Jinseok Kim, Jiyeon Lee

산업화 이후 가속된 전지구 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며, 이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육상 빙하 및 극지 빙상의 용융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해수면은 단순한 환경변화의 차원을 넘어선 기후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해수면 변동에는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및 빙상 용융에 따른 담수 유입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데, 최근 IPCC 5차 보고서에는 빙상 용융의 효과가 보다 우세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.

극지연구소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부근 빙상, 빙하, 빙봉 및 연안 해양에 다학제 빙권변화 종합감시 관측망을 201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 지권-빙권 및 수권-빙권 간 상호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빙권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, 이 발표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빙상 용융이 해수면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.

사 사

이 연구는 극지연구소 PM16020 과제를 통해 수행 되었습니다.